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

중국,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설립

● 5월 19일, 중국은 국영기업 유일의 에너지절약·환경보호전문기업인 中國節能投資公司가 국영기업 中國新時代控股集·을 합병하여 새로이 中國節能環保集·公司를 설립함.

– 중국은 이번 합병으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분야의 기술개발 능력이 상승되었으며,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● '09년 中國節能投資와 中國新時代控股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추산해본 결과, 中國節能環保集·公司의 자산은 50억 위안, 매출은 20억 위안으로 수익은 10억 위안임.

(中國能源網, 2010.5.20)

영국 연합정부, 에너지법안 통과 추진

● 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는 영국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법안인 'Energy Bill 2010'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며,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– 에너지 절약분에 대해 에너지요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및 가정 및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'Green Deal' 시행

–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 규제

– 에너지공급 안보 및 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한 에너지시장 개혁

– 전력 공급 및 수요의 관리를 개선할 스마트그리드의 개발을 가이드하기 위한 기틀 마련

– 에너지기업에 자세한 에너지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

– 소규모의 석유·가스전 탐사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

기업들에 북해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
–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사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'Green Investment Bank' 설립

(Department of Energy & Climate Change,

2010.5.25)

Carbon Trust,

영국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3십억 파운드로 추정

●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업인 Carbon Trust에 따르면, 영국의 공공부문은 에너지효율 대책을 통해 연간 최대 3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음.

– Carbon Trust는 David Cameron 신임 영국 총리가 5월 14일 발표한 향후 12개월 내 정부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10%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개의 중앙 정부부처를 지원한다고 5월 20일 밝힘.

– 동사는 또한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관, 학교, 대학,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을 포함한 120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지원할 예정임.

– 20개 부처에는 에너지기후변화부, 외무부, 보건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의 전체 에너지비용인 500백만 파운드 가운데 이들 부처는 현재 약 120백만 파운드의 연간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음.

● 대부분의 기관들은 최신 미터기 설치 및 직원들의 에너지절약 교육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요금을 10% 절감할 수 있음. 이와 함께 단열재, 조명제어, 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20%까지 감축시킬 수 있음.

(Energy Efficiency News, 2010.5.21)

페루, '10~40년 에너지 정책 제안서 발간

● 페루 에너지 및 광업부(EI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de Peru, MEM)는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 제안서인 'Propuesta de Política de Estado-Peru 2010-2040'을 5월 31일 발간하였음.

- 동 에너지 정책은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내 수요와 해외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원 이용, 천연가스과 바이오 에너지 사용, 에너지효율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데, 총 9가지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.

-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고려 : 재생에너지원 이용 및 에너지 효율 장려
-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에너지 공급 : 전력 및 탄화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, 국제시장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 개발
- 전국적인 에너지 공급 추진 : 시골지역과 도시외곽지역에 천연가스 공급 확대 및 전력 공급 개선
- 에너지효율 최적화 고려 : 에너지 교육 시행, 에너지효율 기준 달성, 에너지효율적인 주택 건축
-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: 천연가스, 석유 생산 증대를 위해 탄화수소 탐사 활동 장려, 도시지역 경유 차량 과세 제언
- 최소한의 환경적 영향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 개발 : 에너지 사용 안전기준 수립 촉진, 과세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 제한
- 천연가스 산업 개발 : 산업 및 도시지역 수송 부문에서 천연가스와 LPG 사용 장려, 석유화학 산업 육성
- 에너지 부문의 제도 확립 : 중·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개발, 전문가 자문을 통한 규제들의 기간별 업데이트, 재생에너지 기술조사 연구소 설립
- 장기적 시각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장 통합 : 에너지안보, 에너지효율,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한 에너지 시장 구성

(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de Peru, 2010.5.31; ADN.es, 2010.6.3)

영국 정부,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 공개 예정

●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와 내무부는 6월 11일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함. 이는 영국 연방 정부가 발표한 12개월동안 정부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10%

감축목표의 일환임.

- 내무부는 온라인을 통해 5초 간격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 및 해당 CO₂ 감축량도 함께 공개할 예정임.

- 에너지기후변화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4시간의 수요에 대한 최고점과 최저점과 함께 전기 및 가스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할 예정임.

● 두 중앙부처의 발표로 향후 수개월 내에 다른 정부기관들도 에너지 소비량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.

(Energy Efficiency News, 2010.6.11)

미국 에너지부,

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개발에 \$76백만 투자

● Steven Chu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월 17일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건물시설의 기술자, 건물운영자, 에너지감독 담당자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작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부양자금 중 약 \$76백만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.

- 에너지부는 총 5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들을 통해 신규 및 기존 건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직업교육을 지원할 예정임.

-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45개로 \$68.4백만의 지원자금을 받게 되며, Net-Zero 건물을 위한 첨단 건물 제어 계획 및 정보통신기술(12개 프로젝트), 건물 요소의 분석 및 설계 기술(5개 프로젝트), 가정용 및 상업용 건물 창문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(14개 프로젝트), 냉난방공조설비(HVAC) 연구(10개 프로젝트), 온수난방설비 효율 개선 및 전기부하 감축(4개 프로젝트) 등 총 5개 부문에서 프로젝트가 선정됨.

*Net-Zero 건물: 외부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건물

-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최대 \$7.6백만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, 총 13개 프로젝트가 선정됨.

● 미국 내 114백만 가구와 74백만㎡ 이상 면적의 상업용 건물은 미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40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9%, 산화질소 배출량의 18%, 이산화황 배출량의 55%를 차지하고 있음.

(DOE, 2010.6.17; Energy Efficiency News, 2010.6.21)